

‘겁 없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무용론 확산

파손하고 잠적 잇따라...감시인력 ‘태부족’ ‘성범죄자 알림e’ 범죄 예방 효과도 ‘미비’

최근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와 ‘성범죄자 알림e’ 등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만 가능해 재범을 막기에 효과가 부족하고, 성범죄자 알림e는 변경 사항이 있어도 범죄자가 직접 경찰서에 알려야 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1일 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재범 건수는 303건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도 연평균 17건에 이른다.

전자발찌 부착은 2회 이상 성폭력법,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법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최장 30년 범위 내에서 선고된다. 발찌를 파손하면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범죄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위치추적을 통한 소재파악은 할 수

있지만, 도구 등 물리적 힘을 이용해 발찌 훼손이 가능한 데다 흉악 재범 사례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광주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194명이며, 이를 감시하는 보호관찰 인력은 14명이다. 감시인력 1명이 대상자 약 14명을 감시하는 꼴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장흥에서는 성범죄자 마창진(50)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해 경찰이 공개 수배 중이다.

경찰은 전자발찌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11km 떨어진 곳에서 마씨가 타고 다닌 차량을 발견했지만, 이후 행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무용론’에 휩싸인 제도는 전자발찌뿐만이 아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역시 업데이트 관리가 되지 않는 등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광주지역에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114명이다. 자치구별로 북구 37명, 광산구 28명, 서구 24명, 남구 14명, 동구 11명이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규정에 따르면 대상자들이 20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이 자의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이트에 명시된

대상자의 주소지가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자 전체가 아닌 일부만 등록돼 있기도 해 정보 공개 제도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 시스템 등 범죄자 관리 제도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이훈 교수는 “전자발찌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지만 교도소 시설 내 처우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시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전자발찌나 신상 정보 공개 시스템 정도로는 부족해 대면면담 등을 통한 밀착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 대상자 수에 비해 관찰소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민빈 기자

오늘의 날씨

나주	21~26	광주	22~25	순천	22~26	광양	22~24
목포	23~25	여수	23~24				

일출 06:06 일몰 18:58
월출 00:53 월몰 16:02

장성	21~26	흑산도	22~26
담양	21~27	구례	22~26
화순	21~26	곡성	21~26
영광	22~26	완도	22~25
함평	22~26	강진	22~26
무안	22~26	장흥	22~25
영암	21~26	해남	21~26
진도	22~26	고흥	22~24
신안	22~26	보성	21~25

목포	만조 09:31 23:03	여수	만조 05:40 18:41
	간조 04:43 15:52		간조 00:29 11:40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국어 쉽고 수학 어려워”

‘9월 모의평가’ 영어, 작년 수능보다 어려워

1일 시행된 2022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서는 학생들이 국어는 쉽게, 수학은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어영역의 경우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통과목 독서 파트의 경우 대체로 지문의 길이가 짧았고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출제됐다.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경우는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이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미

적분 문항과 수열 문항이 ‘킬러 문항’으로 출제됐다. 선택과목의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가 6월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고 6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EBS 수능교재와의 직접 연계가 없어지면서 수험생들이 올해 6월·9월 모의고사를 작년 수능보다 더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

이영덕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어려운 어휘의 긴 지문으로 시간 배분이 어려웠을 수 있다”며 “빈칸 추론 등에서 높은 난도의 지문을 제시해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된 1일 오전 광주 광덕고 3학년생들이 신중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 /김성훈 기자

붕괴참사 책임자 7명 재판 병합되나

현장 감리자 첫 재판...검찰, 피고인들 병합 신청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붕괴참사 재판에서 검찰이 건물 부실 철거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일 302호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감리자 차모씨(59·

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차씨는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중요 해체 공사 현장에서 지도·감독할 의무를 저버린 점은 인정했으나 굴착기 기사와 한술 현장소장에게 작

업일보 제출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다르게 주장하는 굴착기 기사와 한술 현장소장을 신문해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단독 재판부 3곳에서 별도로 재판을 앞둔 공범 6명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피고인들이 있었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나 향후 재판의 효율성,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고 합의부에서 사건을 맡는 쪽으로 다른 재판장들과 논의했다”며 “다만 각 재판부에서 첫 공판 진행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준 기자

광주·전남 내일 오전까지 비

서해상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 낮 최고기온은 25~27도로 예측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서 1~3m로 일겠다. 비는 3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으니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빈 기자

물에 빠진 아들 구하려다 부자 익사

일가족이 타고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해상으로 떨어진 아들을 구조하기 위해 뛰어들어 아버지까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일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40분께 장흥군 우산항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사고로 바다에 떨어진 보성선적 2.99톤 연안통발어선 A호 선원 등 2명이 숨졌다.

부모와 아들 등 3명이 탄 채 조업 중 아들 B씨(30)가 그물 작업을 하다 바다로 떨어졌다.

수영을 못하는 아들이 추락하자 선장인 아버지(60)는 어선에 있던 밧줄을 던졌지만 잡지 못하자 가슴장화(일명 뱀장화)를 벗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

어선에 혼자 남은 어머니가 완도해경에 구조 신청을 했고, 해경은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고 출동했다. 인근에 있던 어선은 아들과 아버지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상무 수(秀)치과 김수관 원장

‘익스퍼트스케이프(Expertscape)’

2020년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한국 2위에 선정!!!

‘세계적 명의, 대한민국 Top Class, 대한민국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김수관 원장’

보건복지부 인증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인 상무 수(秀)치과의원 치의학박사 김수관 원장이 2004년부터 17년간 세계 3대 인명사전(미국, 유럽)에 등재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의학분야 논문평가기관인 의료 전문가 및 기관의 순위를 매기는 ‘익스퍼트스케이프 (Expertscape)’ 에 2020년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한국 2위에 선정 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외 타지역 부분에서 임플란트 수술 전문가로 1위를 차지하며, 빛고를 광주에 임플란트 전문 수술 권위자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Expertscape는 세계에 발표된 치의학 관련한 연구 논문을 데이터뱅크화하여 치의학 연구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하여 연구자의 세계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무 수(秀)치과의 10가지 장점!

- 1 디지털 첨단 의료장비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임플란트 등을 진료하고 있는 치료
- 2 4,000건 이상의 임플란트 진료 건수와 5,000건 이상의 발치 건수 등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임플란트 치료
- 3 세계 3대 인명사전 최연소 등재 및 18년간 모두 등재한 치료의사
- 4 대학병원 치료병원장, 치과대학 학장, 5개 전국 규모 학회장 역임한 최연소 치료의사
- 5 치과분야 104건의 다양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출원중인 치료의사
- 6 치과에 관한 책을 100여권 발간한 치료의사
- 7 신문과 방송에 250여회 출연하는 등 30여년 동안 임상 경험과 다양한 치료 결과를 보여준 치료의사
- 8 200여회 특강을 하는 등 많은 치과의사와 후배를 가르치는 치료의사
- 9 항상 우선적으로 환자분들을 생각하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치료계획 수립 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치료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분들과 가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치료**
- 10 오랜 기간동안 기부(13억여원)와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치료

상무수치과의원 상무역 1번 출구 DY빌딩 2층
Tel. 062-371-4028

평 일 오전 9:00~오후 6:30 (수요일 오전 휴진)
야간진료 화요일 (오후 8:30까지)
토 일 오전 9:00~오후 1:30